

익산 용안생태습지 '국가정원' 추진

시, 전담반 구성...컨설팅 요청 산책로 정비 등 관광명소 조성

익산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용안생태습지가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전담반은 관광활성화 TF팀으로 관광기획반, 시설조성반, 식재계획반, 국가정원 추진반으로 구성해 용안생태습지의 국가정원을 도모하고 있다. 용안생태습지를 관광 명소로 가꾸면서 국가정원 지정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정원 지정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수목원관리원에 사전 컨설팅을 요청했으며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도 추진 중이다.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생태습지 인근에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 노후시설과 산책로 정비, 내부 관광 순환 차량 도입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금강변에 위치한 용안생태습지는 난포리 일원에 67만㎡(20만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청개구리, 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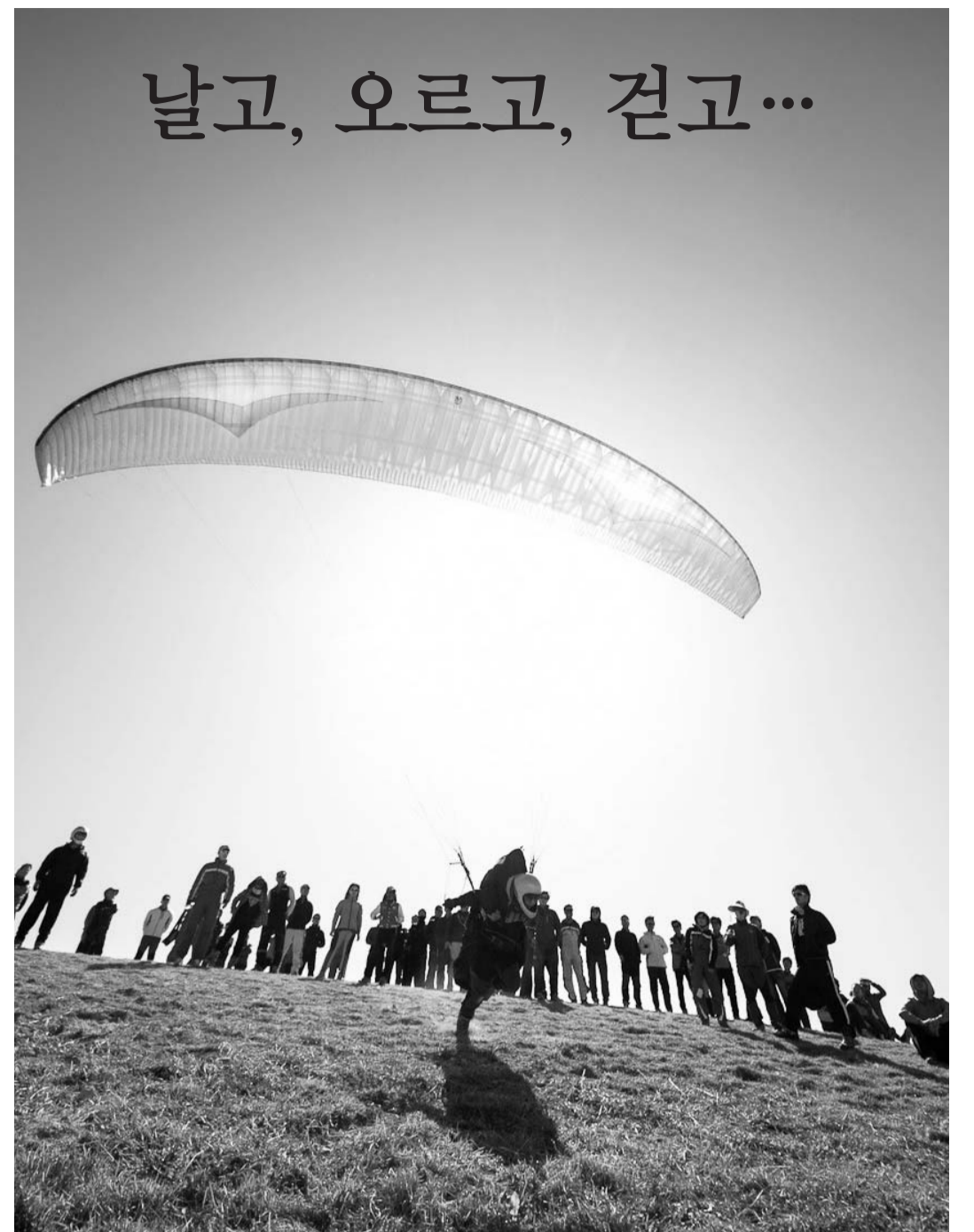
익산시가 전담조직을 구성해 용안생태습지의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한다. <익산시 제공>

땀이 광장 등 4개의 광장과 야외학습장, 조류 관찰대, 전망대, 역사동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근에 조성된 4km에 이르는 바람개비길은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으며 금강과 역새가 어울어진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 곳을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으로 선정했다.

익산시는 용안생태습지의 국가정원 지정을 통해 전국 대표 관광도시로의 성장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고창군이 하나투어와 손잡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레저스포츠 관광 기획전' 상품을 출시했다. 고창 방장산 패러글라이딩. <고창군 제공>

고창군·하나투어, '레포츠 관광 기획전' 이벤트 상품 출시

고창군이 국내 대표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손잡고 전국민 대상 '한반도 첫수도 고창 레저스포츠 관광 기획전' 이벤트 상품을 출시했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고창에서 펼쳐지는 레저스포츠 체험 상품을 11일부터 13일까지 하나투어 홈페이지에서 판매한다.

이번 이벤트는 방장산 패러글라이딩과 대자연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자연암벽 할매바위 클라이밍, 유네스코가 인정한 정정한 운곡습지에서 펼쳐지는 노르딕워킹까지 체험할 수 있는 '고창 레저

스포츠 단독 기획전'이다. 단순 체험 상품뿐만 아니라 지역 체류유도할 수 있는 숙박 결합 상품도 출시됐다.

특히 최대 80% 할인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전국민을 상대로 한 지역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높고 창 할매바위 클라이밍 체험 및 투어'의 하나로 민·관이 함께 고창군 레저스포츠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민선 7기 공약 조정 주민배심원 회의 개최

정읍시는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7기 공약사업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 최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와 주민배심원단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배심원 제도는 정읍시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전문가 위주의 행정 참여 대신 시민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정읍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성별과 나이, 지역을 고려 무작위로 추출해 38명의 주민배심원단을 최종 선발하고 총 3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조정안건으로 올라온 20개 공약사업에 대해 분임별 토의와 투표가 진행됐으며, 토의 결과를 발표하고 전체투표 등을 통해 공약 조정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정읍시는 배심원단이 12월 중 공약사업 조정 권고안을 보내오면 개선방안에 대해 실무부서의 검토



정읍시는 지난 9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7기 공약사업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 최종회의'를 열었다. <정읍시 제공>

토 과정을 거쳐 공약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1월 정읍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들에게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복합 놀이시설 '천사 히어로즈' 개장

정읍 내장산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복합 놀이시설이 문을 열었다.

10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총사업비 49억 2000만원을 투입해 부전동 내장산문화관광 일원에 건축면적 2280㎡ 규모의 복합놀이시설 '천사 히어로즈'를 준공, 개장했다.

'천사 히어로즈'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고 자유로운 놀이문화를 보급하

기 위해 조성된 관광시설이다.

실내형 복합놀이를 테마로 가족 단위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타워클라이밍과 스크린 야구, 사격, 트램펄린 등 17종 39개의 놀이시설을 갖췄다.

놀이 활동가와 안전요원도 배치되고, 학부모와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편의 공간도 만들어졌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현장 접수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정읍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입장객은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손 소독 후 입장이 가능하고, 시간당 이용객은 100명으로 제한된다.

요금은 어린이·청소년은 1시간에 9000원, 성인은 8000원이며, 초과 시 10분당 1000원이 추가된다. 정읍시민은 2000원이 감면된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지역 관련성이 높은 시민은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익산시, 전통시장서 3만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포인트 제공

익산시가 전통시장에서 3만원 이상을 쓰면 1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

익산의 전통시장에서 지역화폐인 '익산다이어움'이나 온누리상품권, 현금 등으로 물건을 산 뒤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이메일((iksan30@

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1000명에게 1만원에 해당하는 익산다이어움 포인트를 이달 말 안에 지급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名 作 名 作 名 作

광화문父子작명가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 당시 白山 선생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 (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作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